

朴 宣 姬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韓紙作業을 통한 自然 이미지 表現 研究

- 本人의 作品을 中心으로 -

2004

誠信女子大學校 造形大學院

造形藝術學科 東洋畫專攻

卞 福 奎

논문개요

자연은 예로부터 인간의 끝없는 관심의 대상이었고 생활의 터전이었으며 그 신비스러움과 장엄함으로 인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늘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자연은 예술가에게 수많은 소재를 제공하고 언제나 풍부하게 예술에 대한 표현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이는 작가의 마음에 따라 소재를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하여 자연에서 질서와 법칙을 발견한다.

예술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미술 양식이나 그 토대가 되는 것이 자연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의 독창적인 예술형식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형식이 발생하는데 있어 그 형식의 발생 동기나 정신의 배경이 되는 것이 현실이나 자연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었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된 사실일 것이다. 이렇듯 예술가는 자연에서 끊임없이 미(美)를 추구하고 또 자연은 무궁무진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자는 오늘날 현대의 각박한 도시생활 속에서 한 발 물러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여유로움, 잃어버린 자신만의 마음속에 간직한 자연의 이미지를 산, 꽃, 비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지의 다양한 표현 기법과 먹(墨), 색(色), 선(線)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한지의 특성을 살려 자연의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써 강인한 생명력과 신비감,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주관적 심상의 소재로 삼아 조형적으로 재구성하여 혼돈과 무질서한 사회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자 하였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인간이 자연에서 제공받는 내적 심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한지의 역사와 특징을 연구하고 회화에서의 자연의 이미지를 고찰해 보며,

방법적 연구로는 한지를 물에 불려 주물러 반죽하는 것과 손이나 도구를 이용한 선 긋기나 두드리기, 찌기 등 다양한 한지를 이용한 기법적인 면과 본인의 심상에서 걸러진 자연 이미지 표현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한지를 이용해서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연의 이미지를 외적으로 조형화 한 것으로 다양한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한지작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았고, 이를 통하여 내적 표현방법을 습득하여 작품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작업방향을 보완해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보며, 앞으로 더 많은 소재를 접하고 다양한 기법과 탐구를 모색하여 새로운 한지작업을 연구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이론적 배경	3
1) 한지의 역사와 특징	3
2) 회화에서의 자연 이미지	7
2. 방법적 연구	10
1) 재료적 특성에 따른 표현 기법	10
2) 자연 이미지를 통한 감정 표현	12
3) 선의 다양성에 따른 표현	14
III. 작품 분석	17
IV. 결론	34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山 - 삶 , 162 × 130cm, 종이죽, 떡, 2002

【작품 2】 山 - 삶 , 162 × 130cm, 종이죽, 떡, 2002

【작품 3】 山 - 삶 , 130 × 162cm, 종이죽, 떡, 2002

【작품 4】 山 - 삶 , 150 × 37cm, 종이죽, 떡, 2002

【작품 5】 비에 젖은 꽃 - 씻어내림, 53 × 92cm, 종이죽, 과슈, 2002

【작품 6】 비에 젖은 꽃 - 씻어내림, 81 × 130cm, 종이죽, 과슈, 2002

【작품 7】 비에 젖은 꽃 - 씻어내림, 112 × 146cm, 종이죽, 과슈, 2002

I. 서론

자연은 본래 인간의 삶의 터전이었기에 인간의 미의식 또는 예술적 활동도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 왔다. 예로부터 예술가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자신들의 내적 체험을 여러 가지 예술형식으로 표출하였다. 특히 조형예술에서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많은 작가들이 자연의 오묘한 조화미를 독창성 있는 미적 형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왔다. 이러한 표현의 양식은 현대에 이르러 작가의 개성적 주장이 강해지면서 자연의 외적 묘사 또는 재현에서 벗어나 작가 자신들의 내적인 것을 형상화하여 표현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발단으로 하여 새로운 창조의 힘을 얻게 되며 이 힘은 예술적 영감을 불러 일으킨다. 예술은 자연을 이상(理想)화 시킨 것이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인간의 이상일 수도 있다. 예술가는 자연에서 끊임 없이 새로움의 발견과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며 직관(直觀)을 통하여 표현력 형성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작업은 자연의 대표적인 소재인 산, 꽃, 비를 주제로 한지를 이용하여 산의 웅장함과 꽃에서 느끼는 자연의 율동적인 아름다움, 비에서 느끼는 시원함과 포근함을 형상화함으로써 대자연의 강인한 생명력과 신비성, 그리고 감성과 내면의 열정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갖가지의 이미지를 체험을 통하여 받아들여진 주관적인 감동과 내적인 심상적(心象的) 이미지를 연결시켜 내면세계의 표현수단으로 구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한지의 특징을 이용하여 선, 색, 먹 등의 매체와 물성(物性)들이 어우러져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하나의 자연 이미지에 대한 조형공간을 형성해 나가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화면상에 표현된 매체와 조형 요소들은 연구자의 조형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주된 표현 매체로써 쓰인 한지의 역사와 특징 및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 한지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회화에서 의미하는 자연 이미지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와 예술로써의 자연에 대한 표현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방법적 연구에서는 작품에서 쓰인 한지의 특징에 따른 여러 가지 표현 기법에 대해 논하고, 산, 꽃, 비라는 소재의 내면적 심상에서 우리나라는 생동감과 서정적인 이미지를 작품에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을 근거로 작품에서 매체에 대한 조형화 과정과 작품의 제작의도에 따른 표현기법을 소재, 재료의 특징에 따라 자연 이미지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한지의 역사와 특징

종이의 발명은 인간의 삶과 인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 인간의 문화생활에서 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날 뿐 아니라 예술의 표현 매체로써 종이의 역할 및 가능성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종이는 단순한 회화 행위의 바탕이나 장(場)으로만 간주되어 오다가 현대 미술 사조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매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종이조형(paper making)의 작품화 성향을 띄고 독자적인 표현양식 속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종이는 한낱 도구에만 불과한 단순 재료가 아니다. 동양에서는 종이를 수트라(sutra), 종교의 기록물, 정신이 투영된 물질로 인식하여 심리적으로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농경문화 특유의 민간 신앙에서는 종이 부적 같은 것들을 재앙에서 인간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물리적 대상 이상의 신비스럽고 경이한 것으로 인식해 왔다. 장례나 제사와 같은 의식 과정에서도 종이를 태워서 영혼을 무사히 사후 세계로 보낼 수 있다고 믿는 등 종이를 상징적이고 신성한 물질로 인식하였다. 대상에 대한 동양의 인식 태도는 물질을 단순한 결합이나 상호작용 그리고 유용성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생성을 좌우하는 근본 원리를 찾는 데 까지 나아가고 있다.¹⁾ 이러한 영적, 정신적

물질로써의 종이에 대한 경외심 외에도 일상 생활에서 기름을 먹인 장판지, 문살에 발라 바람을 막아주는 창호지, 지공예품 등의 많은 실용적이고 심미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종이의 기원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 종이는 중국 후한(後漢) 원흥(元興) 원년(서기 105)에 채륄(蔡倫 ?~121? : 중국 후한 중기의 환관)이 최초로 실용성이 있는 종이를 발명한 이래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6, 7세기에 들어와서는 각종 색지와 금박을 입힌 것들까지 나오고 8, 9세기에는 필사본 책이 나오며 10~13세기부터 인쇄술에 힘입어 현대에는 종이 문화의 극성기(極盛期)를 맞고 있다. 종이가 이렇게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값이 싸고 원료의 가소성(可塑性)이 크며 수명이 길고 보관이 용이(容易)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종이가 존재하여 사용되어 왔음은 일찍이 낙랑시대 고분 채협총(彩篋塚)²⁾에서 종어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되어 이 무렵부터 처음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종이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1400여 년 전 고구려의 승려 담징(曇徵 579-631)에서 효시를 찾을 수 있으며, 명대(明代)의 책들에 고려지(高麗紙)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특산의 종이가 있어 중국으로도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한지는 뽕나무 과의 닥나무 또는 꾸지나무⁴⁾의 껍질 속에 있는 섬유로 만들며 1년생 닥나무의 가지(맹아지, 萌芽枝)를 11월에서 2월 사이에 베어서 사용한다. 닥나무를 한겨울에 거두는 이유는 이때 섬유질이 잘 생성되어 있고 수분도 약

1) 이승철, 『우리한지』, (서울 : 현암사, 2002)

2) 평양특별시 낙랑구역에 있는 2세기 말경의 덧널무덤

3) 제공규, 『한지사 소고』 논단, (서울 : 서울국립중앙 도서관, 1973)

4) 뽕나무 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의 작은 교목으로 닥나무와 흡사하다. 5~6개월에 암수 한집의 연한 녹색의 작은 꽃이 잎겨드랑이에서 피며 열매는 핵과로 순가락모양이며 9월에 붉게 여문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에 분포하고 나무껍질은 종이 만드는데 쓰이고 열매는 식용하거나 약재로 쓰이며 어린잎은 식용한다.

50% 정도로 적당히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맹아지, 즉 햇닥을 쓰는 것은 섬유가 여리고 부드러워 종이뜨기에 알맞기 때문이다.⁵⁾

중국지나 일본지에 비해 닥나무를 주원료로 하는 한지는 산출된 곳과 지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와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대개 원료와 용도, 만드는 고장, 두께, 크기, 염색에 따라 종류와 명칭이 구별된다. 이런 닥나무가 종이가 되기까지는 줄기를 베어 삶고, 말리고, 벗기고, 두드리고, 뜨는 등 99번의 손길을 거친 후 마지막 사용하는 사람이 100번째 만진다 하여 옛날에는 닥종이를 백지(百紙)라 하였다. 한지의 제조과정은 크게 '원료만들기 → 삶기(닥죽만들기) → 씻기와 표백(수세와 일광 표백, 티 제거) → 두들기기(고해(叩解)) → 종이뜨기(초지(抄紙)) → 물빼기(베개 놓기, 짐짜기, 압착 탈수) → 말리기(건조) → 다듬기(도침) → 다리기'의 아홉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주원료 만들기는 '거두기(채취) → 찌기(닥무지) → 껍질 벗기기(흑피, 백피), 말리기, 바래기(박피, 건조, 일광 표백) → 담그기(침지)'의 과정을 거친다.⁶⁾

한지는 습윤과 건조의 제작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쉽게 다룰 수 있다는 표현 재료적 특징을 지닌다. 종이가 그림 재료로 널리 쓰임에 따라 자연히 한지와 결부된 기법도 점차 확대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지가 흡수력이 높아지는 쪽으로 계속 활성화되어 온 것은 잘 녹고 잘 스며드는 수용성 재료와 결부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종이의 특징 중 침윤성(浸潤性)⁷⁾을 말한다. 또한 한지는 가볍고 얇으며 신선미와 친근감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특히 한지의 경우

5) 이승철, 『종이만들기』, (서울 : 학고재, 2001)

6) 이승철, 『우리한지』, (서울 : 현암사, 2002)

7) 소량의 습기에 빠르게 반응하는 흡수성은 동양의 정신문화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재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은 종이 위에 붓으로 행위를 가하는 사람의 호흡과 행위의 강약과 장단을 극렬하게 드러내 보이는 특징이기도하다.

종이의 질이 얇으면서도 부드럽고 질겨 작업과정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속성을 지녔으며 독특한 질감을 갖고 있다.

한지가 갖는 특징을 분석해 보면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장기적인 보존성이다. 보통의 양지가 100년을 넘기 힘든데 비해 현존하는 최고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⁸⁾은 1300년 동안 보존되어 온 것이다.

둘째로는 소량의 습기에 대한 흡수성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재료가 종지와 만날 때 어울리는 점을 이용하여 동양의 미술 재료가 발달하여 왔다. 그 대표적 재료인 한지는 물과 함께가 아니면 어울리기 힘들고 먹, 물, 안료 등의 재료가 모두 친수성(親水性)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동양 고유의 품격이다. 한지가 먹이나 염료와 함께 어울려지면 가치 있는 일품이다. 서구의 문물(文物)은 규격화된 데 비해 우아한 고전미를 띠는 한지는 정확한 규격을 갖지 않아 각 장마다 그 모습이 다르다. 또한 여백을 중요시하는 전통에서 알 수 있듯이 종이 자체가 그림의 일부으로써의 역할을 해왔다.

네 번째는 보온성이다. 한지는 섬유 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창문에 바른 창호지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잇는 틈을 유지함으로써 계절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여 방안의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⁹⁾

한지의 의미는 이미지를 부과하는 장으로써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행위를 깊이 수용하여 작가의 의식과 합일(合一)하면서 동시에 그 물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존재로써의 종이이다. 이러한 종이 작업의 배경에는 동양적인 대상인식의 일원적 태도 즉 물아일체(物我一體)의 물리적 배경과 함께 내재되어 있다.

8)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最古)의 통일신라 때 불경인쇄본(佛經印刷本)

9) 『소호산림문화과학연구보고서 제 2집』, (1999) p16~18

본 연구자가 작품에 주된 매체로 한지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한지는 우리의 정서가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지문화, 창호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소재이다. 그리고 한지의 물성이 자연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본인의 사고와 감성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데 적절하며 한지라는 물성 자체에 주안(主眼)하여 공간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형상화시킴으로써 한지의 위상을 새로이 설정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수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미적 표현 방법에 있어 한지가 갖고 있는 매체의 특수성이 조형적으로 나타내는데 적당하다 본다.

2) 회화에서의 자연 이미지

인간은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으며 자연을 통해 자아의 존재와 생명력을 확인하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생명체로써 근본적으로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또한 자연은 모든 예술의 근원이며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외관의 미(美)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는 존재의 본질이 내재(內在)되어 있다. 이에 '인간이 추가된 자연'이라 하듯이¹⁰⁾ 자연 속에 인간이 투사됨으로써 비로소 자연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화' 된다. 그리고 인간화된 자연은 하나의 영혼의 상태에서 내면세계를 형상화하여 예술가의 독창적인 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표현은 자연을 보는 시각적 척도에 따라 상이(相異)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연에 끊임없이 접근하여 세밀한 관찰과 그 관찰을 통한 감동을 자신만의 독창적 표현에 의해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특질을 찾아내어 독창적인 양식으로 형성하는 일인 것이다.¹¹⁾ 그러므로 자연의 일부로써 인간, 자연과

10) 이 일, 『재현표현 그리고 실현』, (서울 : 공간2호, 1975) p26

11) 백기수, 『미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국, 1979) p3

인간과의 관계 등을 내적인 감정과 교합하여 서정적인 상징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작가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상세계에 상상력을 일으켜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독특한 개성으로 자연을 재창조하여 자기만의 조형 의지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작가가 자연을 이해하고 형상화하는데 있어서는 동·서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양사상 특히 노장사상(老莊思想)에 의하면 천지만물의 현상이나 인간까지도 모두가 자연 속에 포함되는 것이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¹²⁾ 하여 인간을 자연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인간까지도 자연의 일부로 보아 자연 속에 순응하고 자연의 영적인 면을 깨닫고자 하였으며 외면적인 형태와 그것에 내존(內存)해 있는 생명력을 관찰하는 미적 감동에 근원을 두어 예술미와 자연미를 동일시 여겨왔다.

한편 서양의 자연관은 대체로 인간에 대립한 비인간을 말하는 것이며 정신에 대립한 외적 경험에 의해서 성립된 객체의 전부를 일컫는 말이다. 서양에서는 자연을 인간과 대립적 존재로 관찰과 실험의 대상으로 분석하고 인간에 의해 정복되어지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동양의 자연관은 자연과의 조화이고 서양의 자연관은 자연과의 대립이었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예술활동의 무한한 소재를 제공하여 왔으며 인간은 자연을 끊임없이 탐구하여 체험한 미를 예술이란 형식을 통해 표출한다. 이런 관계로 자연의 미를 추구하는 범위는 무궁무진하고 자연은 무한히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울 수 있으며 예술의 표현대상이 된다.

예술은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하는 표현(expression)인 것이다.¹³⁾ 예술가는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강렬한 감동과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아직 존재한 적이 없는 실재를 만드는 창작활동을

12) 이은상, “자연론”, 『예술원 논문집』, (제5집, 1996) p75

13)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 : 경문사, 1973) p28

한다. 즉, 작가의 주관은 이미지로 표출함으로써 상징화된 대상을 주체를 가진 미적 대상으로 구체화시켜 창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술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면세계에 있는 주관적인 체험을 예술적 동기로 전환시켜 의식된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 때 예술가는 내적 직관에 의해 사물의 본성에 접근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주체화된 이미지를 추출해 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예술은 자연의 모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표현에 있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서도 자연은 대상을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자연에서 느낀 행복함의 표출인 것이다. 물론 자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표현방법이 사람마다 혹은 시대마다 다양하지만 본 연구자가 느끼는 자연은 각박한 도시생활에서의 피난처이자 안식처이며 자연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평온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통해 행복을 느껴 현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운이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조형표현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에서 느낀 감성을 바탕으로 이미지화 시켜 한지에 먹과 색을 가미하여 내면적인 표현을 풍부하게 나타내었다.

2. 방법적 연구

1) 재료적 특성에 따른 표현 기법

한지는 생활공간에 수용된 건축적, 공예적 재료로서의 용도와 회화, 서예 등 주로 문방으로서의 용도로 크게 구분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창호와 벽과 같은 내부공간을 에워싸는 용도는 말할 나위도 없고 직접적인 생활 기물의 제작용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내구성이 강한 한지의 재질적 특성은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인쇄물로서 적절하며 회화나 서예의 바탕으로도 가장 적격이었다. 중요한 물건을 고이 포장해 놓는 함지와 같은 용도를 지니는 생활 기물을 제작해 내는 데까지 한지는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신문화뿐만이 아니라 생활 풍습의 구석구석까지 함께 숨쉬어 온 것이다.

본 연구자 역시도 우리의 정서가 반영된 한지를 통하여 자연의 이미지에 대한 조형을 만들어 내었으며 한지를 선택한 이유는 작가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지가 갖는 수분에 민감한 흡수성, 한지가 지니고 있는 부드러움과 아름다움, 찢어지기 쉬운 성질 등을 이용하여 여기에 먹과 색을 더해 조형미와 자연스러움을 보여주었다.

한지를 응용한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보면,

- ① 줍치기법 -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이를 만들 때, 닥섬유를 손에 쥐고 계속 주물러서 구기고 다시 잡아 폼다가 또 구기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여 한지 표면에 인위적인 구김자국을 만드는 기법이다.
- ② 닥섬유 그리기 기법 - 한지의 원료에 해당되는 닥섬유소와 염색된 섬유질을 여과기 위에 얹고 밀면서 중첩시킬 때 섬유소끼리 엉키고 결합되면서 선적

인 표현을 보이는 기법이다.

- ③ 종이판화기법 - 기존 물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의도대로 새긴 형태 위에 물을 적신 수제종이로 누르면서 골고루 문질러 도드라진 형상으로 몇 번씩 떠내는 기법이다. 석고나 점토, 스티로폼, 아이소 핑크 등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캐스팅 하는 방법도 많이 하는 기법이다.
- ④ 손맛에 의한 표면효과 - 종이에 손으로 구멍을 뚫거나 거친 타솔로 두드리거나 긁는 등의 손맛을 내는 기법이다.
- ⑤ 빗어 부치기 - 닥섬유로 빗어 붙인다는 것은 물에 풀어진 닥섬유를 주므르고 반죽해서 얇은 형태를 빗어 약간 도드라지게 붙이는 것이다.
- ⑥ 종이조각 - 종이조각이란 생각해 낸 아이디어에 질긴 종이의 물성을 더하여서 덩어리감으로 형상화시킨 부드러운 조각을 칭한다.
- ⑦ 종이떠내기 - 조형적인 입체물을 흙으로 빚은 후 그 형태를 석고로 떠낸 뒤에 종이를 얹어 완성시키는 기법이다.¹⁴⁾

이와 같이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많은 작가들이 한지를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작업에서는 한지를 물에 불려 주므르고 반죽하여 먹이나 색을 입혀 손이나 타솔로 두드리 매끄러운 표면이나 거친 질감을 표현하며 붙이는 양에 따라 두께를 주어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이 과정에서 팜(PAM, Polyacrylamide)¹⁵⁾이라는 인공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팜은 닥풀(황촉규, 黃蜀葵)¹⁶⁾과 같은 역할로써 물에 불린 한지가 서로 잘 접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팜은 넣는 양에

14) 김희정, "닥섬유를 이용한 자연 이미지의 표현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12-14 요약

15) 황촉규점액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화합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설탕과 비슷한 형태의 가루이다. 이 분말 형태의 PAM을 물에 용해하면 천천히 겔 상태의 고분자로 용해된다. 용해된 PAM은 액상으로 장기간 보관해도 상하지 않으나 충분히 용해되지 않으면 완성된 종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16) 닥풀은 황촉규(黃蜀葵)의 뿌리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점액이다.

따라 반죽된 한지가 끈끈해져 선을 긋거나 이미지를 조형할 때 한지가 부드러워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한지의 물성을 생각하여 젖어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해 긁어내기도 하고 선을 긋기도 하며 뽀족한 것으로 찍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여 자유로운 질감을 표현하였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먹과 색 또한 한지에 입혀 대상에 대한 공간감의 깊이를 더하도록 하였다. 특히 먹에서 변화를 주어 처리하는 것이 자연에 대한 내면적인 표현을 풍부하게 만든다 생각한다. 먹의 변화는 밝고 어두움, 가볍고 무거움, 혹은 두텁고 얇음 등 서로 다른 느낌을 한지의 질감과 더불어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색과 먹의 번짐이 농묵에서 담묵으로 퍼질 때 나타나는 번지기 기법에 의한 우연성을 통하여 자연의 이미지를 더 부드럽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번지기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우연적인 것으로 자체의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한지의 특징인 소량의 습기에 대한 흡수성을 보여준다.

2) 자연 이미지를 통한 감정 표현

자연은 인간의 끊임없는 연구 대상이며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경험과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다. 표현된 자연은 대상 자체의 질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며 내적인 정신세계를 형상화시킨 것이다. 예술가는 자연 형태가 가진 추상적 의미를 그대로 변화시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고 자연형태의 특색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자연 이미지를 표출할 때 자연에 대해 스스로 받은 느낌이나 감동이 없이는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내면의 대상으로 조형화 하였고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산, 꽃, 비를 매개

물로 선택하여 내면세계를 표현하였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쳐온 산은 시대의 변천이나 문화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모색되었다. 산은 비록 자연의 일부지만 도시의 형태와 결합되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나아가는데 적절한 소재이다. “산은 모든 자연 풍경의 시초요, 종말이다.”라고 한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¹⁷⁾의 말처럼 가장 심오한 자연의 경치관을 이루고 있으며 신화와 고대 신앙, 민족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산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쇠퇴하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모습을 달리해왔으며 생활 정서를 윤택하게 하고 어머니 품 속 같은 평온함과 생명의 울동을 느끼게 한다. 산이 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지니는 울동과 밝고 어둠의 요소를 한지에서 먹의 농담 변화와 번짐과 선의 움직임 등으로 나타내어 시각적 요소로써 산에 내재된 모든 변화를 표현하고자 했다.

꽃은 생활 주변에서 가장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의 하나로 그 어떤 대상보다도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함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상징적으로 표출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다. 예술작품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꽃은 단순한 빛깔이나 모양 혹은 향기만으로 인식되지 않고 꽃의 본질이 갖는 내적 생명력에 희망, 사랑, 기쁨, 꿈 등의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날 기술 문명의 팽창에 따른 자연의 파괴와 인간성 상실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소외의식, 불안감, 공허감, 긴장감, 갈등과 좌절 등을 꽃의 형상을 통해 이러한 현실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여 현실세계와 이상세계와의 조화를 꾀하려 하였다. 그리고 꽃을 자연에서의 생명의 신비나 아름다움, 환생을 상징하는 영성(靈性)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여 이상세계에 대한 염원을 표출하고자 한다.

물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물은 구름과 바람의 이상작용에 의해 비가

17) 영국의 저술가, 미술 평론가, 사회 개혁가, 저서로 『근대화개론』, 『예술 경제학』 등이 있다.

되는데 이는 우리의 대지를 적시어 주는 작용을 한다. 비는 만물의 생명력을 발아(發芽)시키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며 동시에 창조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자는 비에 의한 미적 요소를 내적 심상에 의하여 유추해 내고 변형을 통해 조형화 하였는데 비가 지각(知覺)되어지는 형태로 보슬비나 가랑비 등은 짧고 굽은 선으로 나타내어 순수함과 그리움을 표현하였고, 호우나 소나기 등은 굽고 밀도 있는 강하고 긴 선과 가는 선으로 이용하여 시원함을 나타내었다.

비는 대지를 푸르게 하고 우리의 심연에 어떤 변화를 낳게 한다. 작품에서 비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추억의 회상이며 그리움, 시원함, 후련함, 포근함 등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3) 선의 다양성에 따른 표현

회화를 순수한 표현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재현이 아니라 보다 진실한 내면세계를 조형적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상징은 사물들을 지시하고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의미를 암시하고 동시에 그 사물의 관념을 표출하여 정신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의 매개로써 나타낸다.

이렇듯 선은 단순히 형상의 묘사를 벗어나 순수의식의 표현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어떠한 행위성에 의한 정신의 표출로까지 나아갔다. 선은 어떤 윤곽을 보여주는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형태 또한 선에 의해 묘사로 이루어지므로 선이란 매우 근본적인 조형단위이며, 그 자체는 무한한 변화 즉 공허한 화면 위에 방향, 속도, 굽기 등을 통해 가능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또한 선은 면, 색과 함께 포름(forme)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명확성과 동적인 울동감, 입체감까지도 명시해 주는 광범위한 효과를 지닌다. 이것은 매우 풍부한 수단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정서나 분위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의미라고 하겠다. 그리고 작가는 선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추구하게 된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사용되어지는 선은 그린다는 원초적인 행위를 통해 의식적인 선과 무의식적인 선을 적절히 혼합하여 내면의 세계와 행위 자체를 함께 화면에 객관화시키려 했다. 또 자연의 현상과 동일시되어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 가능하게 하며 선적 표현 자체는 생명을 가진 존재를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허버트 리드(Herbert Read 1893~1968)¹⁸⁾는 “선은 요약된 것이며, 그 자체가 나타내는 것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있다” 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은 가시의 대상이기 전에 우주적 질서 속에 내재된 생명성을 지닌 기호임을 말한다.¹⁹⁾ 선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운동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데 한지, 색, 먹과 더불어 적합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작품에서 더욱 뚜렷이 볼 수 있는데 화면에서 보여 지는 선은 항상 표현으로써 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행위이기도 하며, 생(生)의 역동적 실체로 유동적인 화면을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촉각적 조형적인 선은 화면의 깊이를 더하는 색채와 먹과 함께 공간을 통일하는 미적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내재된 생명성의 역동적인 힘에 의해 작가의 정신세계를 화면에 표출하게 된다.

작품 속에서 보이는 선은 무의식 속에서 운동감과 리듬감을 지닌다. 생동적인 느낌을 감흥 있는 선으로 단순화시키며 이 리듬과 율동은 운동의 연속에 대한 포착과 자연 대상의 생생한 감동에 대한 포착으로 출발하였다. 생동감의 전달을 위해서 한지가 마르기 전에 빠르고 신속한 선묘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한지의 수분이 증발되어 더 이상 작업할 수 없으므로 한정된 시간 안에 집중된

18) 영국의 시인, 예술 비평가

19) 이 일, 『현대 미술의 시각』, (서울 : 미진사, 1985) p208

작업을 해야 한다.

작품에서 반복되어 나타낸 선들은 특유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존재하며 무의식에 따른 심상의 표현을 비라는 소재를 통하여 내적 심상을 나타낸 것이다.

Ⅲ. 작품 분석

최근에 미술작품의 매체로써의 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지가 단지 그림의 바탕으로 즉 단순한 재료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지의 조형적 가능성을 발견하여 한지 자체를 표현의 질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지와 그 한지작업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정신세계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종이라는 재료는 작업에 각 과정에서 인간적인 친근감을 갖게 해준다. 본인은 작품제작에서 닥섬유를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정서가 느껴질 수 있도록 형태, 색, 질감 등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근원적으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써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와 자연의 천연적 이미지는 서로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자연의 이미지에 대한 조형적 형상을 만들어 내고자 큰 비중을 두었다. 그리하여 대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져온 한지가 작품의 재료로써 적합하다 생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한지가 갖는 수분에 민감한 흡수성, 한지가 지니고 있는 부드러움과 아름다움, 찢어지기 쉬운 성질 등을 활용하여 여기에 먹과 색을 더해 조형미와 자연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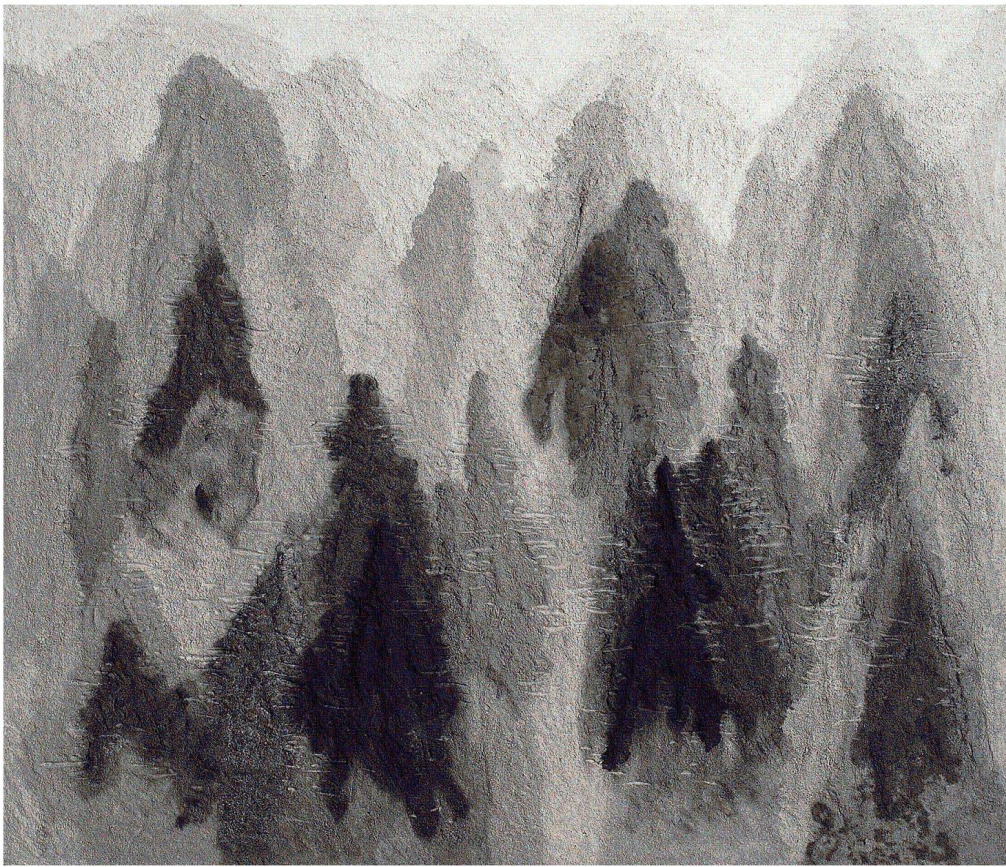
한지를 이용한 초기 작품은 입체성형으로 석고를 이용하여 얼굴에 마스크를 떠낸 후 그 안에 으갠 한지를 넣어서 다시 종이를 입체적인 얼굴 부조를 떠낸 작업을 했으며, 또 종이 부조 형태로 종이의 표현방법을 변형하여 종이 색상자를 만들어 작품에 응용하기도 하였다. 부재료로 팜(PAM.Polyacrylamide) 대신 일반 풀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타술이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표현보단 주로 손만을 이용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본 작품들의 작업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우선 두꺼운 한지(삼합지(三合紙))를 화판 전체에 풀을 발라 완전히 밀착되도록 붙인다. 그 다음 커다란 양동이에 미지근한 물을 담고 그 안에 한지를 한장 한장 잘게 찢어 넣는다. 여기서 물과 한지의 비율은 한지에서 물기가 약간 느껴질 정도로 조절한 뒤 하루 정도 그대로 불려 놓는다. 이렇게 반죽된 한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따라 먹색이나 색을 입혀 화판 위에 적당한 양(약 1~2cm 정도의 두께가 되도록)을 올려놓은 뒤 손이나 타솔을 두드려 거친 질감이나 매끄러운 표현을 자유롭게 나타낸다. 불이는 양에 따라 두께를 주어 입체감에 변화를 주었고 이 위에 손가락을 이용하여 다양한 선을 표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팜이라는 인공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팜은 닥풀(황축규,黃蜀葵)과 같은 역할로 물에 불린 한지가 서로 잘 접착하도록 한다. 팜은 넣는 양에 따라 한지의 표면이 매끄럽기도 하고 거친 질감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팜은 완전히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 쓰게 되면 종이에 구멍이 뚫리거나 그 부분이 검게 변색하며 종이의 산성화(酸性化)가 빨리 진행되어 내구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종이 표면에 남아 있는 잔류 성분이 채색 물감과 화학 변화를 일으켜 색상 변화도 일으킬 수 있어 팜을 사용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한지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한지의 물성을 이용하여 젖어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긁어내기도 하고 선을 긋기도 하며 뽀족한 것으로 찍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였다. 특히 산의 이미지인 작품 【 1, 2, 3, 4 】 를 조형할 때는 한지에 먹을 입혀 단계별로 만들어 놓고 원근감을 나타내며 주로 입체감과 거친 질감을 주었다. 이렇듯 한지는 작가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표현이 가능하며 즉흥적인 움직임을 잘 반영하여 작가의 정신세계를 화면에 잘 표출하게 한다.

작업과정에서 건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건조되는 시간은 계절과 날씨 별로 달라진다. 무더운 여름이나 바람이 많은 가을에 건조 시간은 한지를 붙이는 양과

두께에 따라 대략 6~7일 정도 소유되며 습기가 많은 날에는 선풍기나 히터와 같은 인위적인 건조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화판의 형태가 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채색화나 수묵화와는 달리 계속 덧칠하는 것이 아니고 화판 위에 스케치를 한 뒤 직접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한번에 먹이나 색을 입혀 완성시키는 작업이어서 잘 건조시키지 않으며 곰팡이가 피어 그림 전체를 다 버려야만 할 때도 있다. 그리고 큰 작업은 며칠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 지는데 그 사이에 한지의 습기가 증발되어 작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분적인 건조로 먹이나 색의 번짐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으며 화면이 갈라져 돌과 같은 느낌의 딱딱함이 표현되기도 한다.



[작품 1] 山 - 삶 , 162 × 130cm, 종이죽, 먹 2002

【작품 1】 山 - 숲

- 크기 : 162 × 130cm
- 재료 : 종이죽, 먹
- 제작년도 : 2002

자연은 예로부터 인간에게 관심 대상이었고 생활의 터전이었으며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장엄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늘 표현을 갈망하게 하였다. 그리고 현대의 도시화된 현상 속에서 인간성, 생활 방식, 윤리, 도덕 등 갖가지 부분에서 인간적 소외를 느끼게 하며 더욱 더 인간은 자연에 귀의하기를 바라며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본 연구자에게도 자연은 하나의 안식처요, 그 중산은 평온함과 생명의 울동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작품 1】은 초여름에 설악산을 다녀 온 뒤 느낀 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한지와 먹의 농담 변화를 통해 산의 원근감의 깊이를 더 했고 가로와 짧은 선으로 나무의 푸르름과 풍성함을 나타내었다.

자연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런 자연의 이미지를 표출하는데 한지가 적절하다고 보고, 한지를 잘게 찢어 물에 불린 다음 주무르고 반죽하고 먹의 농도를 달리하여 한지에 입힌 후 스케치한 화판 위에 알맞은 양만큼 올려놓은 뒤 손이나 타솔로 두드려 화판에 붙였다. 이 과정에서 팜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높였으며 한지를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여 자유로운 표현작업이 되도록 하였다.



[작품 2] 山 - 삶 , 162 × 130cm, 종이죽, 먹 2002

【작품 2】 山 - 삶

- 크기 : 162 × 130cm
- 재료 : 종이죽, 먹
- 제작년도 : 2002

【작품 2】 산은 떡과 한지가 조화를 이루어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는 이미지로 초여름 산의 푸르름과 비가 내려 물안개가 살짝 낀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하였다.

한지와 한지 사이에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손으로 문지른 다음 비를 표현하기 위해 가는 대나무 묶음을 이용하여 한지가 마르기 전에 그어주었고 굵은 선은 손가락으로 눌러 강·약을 주었다. 떡의 농담 변화로 원근감이 나타나며 근경은 강한 떡으로 멀어질수록 담묵을 사용하였다. 자연스런 떡의 번짐으로 인해 급격한 농담 변화가 나타나지만 한지와 한지의 연결이 부드러워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런 큰 작업은 며칠에 걸쳐 작업을 하게 되므로 그 전날 작업한 한지가 부분적으로 건조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이미지 스케치와 적절한 떡의 변화에 따른 유연성 또한 예측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작품 3] 山 - 삶 , 130 × 162cm, 종이죽, 먹 2002

【작품 3】 山 - 숲

- 크기 : 130 × 162cm
- 재료 : 종이죽, 먹
- 제작년도 : 2002

다른 산들이 산 밖에서 본 풍경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라면 이 작품은 산 안에서의 느낌을 나타낸 것이다. 산 안의 절벽과 바위, 나무를 각각 먹의 농담변화로 표현하였고 다른 작품의 산들에 비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하여 이곳이 깊은 산 속임을 암시하고 있다. 비도 지나가는 비가 아닌 장마철의 비처럼 끊임 없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주로 가는 대나무 묶음을 이용해 긴 선으로 소나기와 장마 비를 표현한 것이며 손가락을 이용한 굵은 선은 보슬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자가 느끼는 비는 자연에서의 포근함과 시원함이다. 포근함이란 유년시절 비 올 때의 느낌으로 온 식구가 일찍 집에 모여 함께 했던 단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또 시원함이란 계절적으로 초여름의 비로 대지를 축축이 적셔 만물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의 비는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시원함과 상쾌함을 표현하였고 비로 인해 산 속의 계곡의 넘쳐흐르는 물은 먹의 농담변화와 번짐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4] 山 - 삶 , 150 × 37cm, 종이죽, 먹 2002

【작품 4】 山 - 삶

- 크기 : 150 × 37cm
- 재료 : 종이죽, 먹
- 제작년도 : 2002

【작품 4】는 연구자가 중국의 계림을 다녀온 뒤 느낀 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계림의 산은 우리나라의 완만하고 둥근 산과는 달리 기묘하고 독특하게 생긴 모양의 산들이 많은 곳으로, 이 작품은 한지에 농담 변화를 주어 다른 작품과는 달리 특별한 스케치 없이 자유롭게 표현했다. 화면을 완전히 메운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 부분은 여백을 주어 화판위에 반죽한 한지가 잘 붙게 하기 위해 붙인 삼합지를 드러내므로 산 아래의 강과 산 위의 하늘을 먹의 자연스런 번짐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산과 하늘과 강이 하나가 되게 표현됨으로써 이런 번짐의 효과로 계림의 기묘하게 생긴 산의 신비함을 드러내 보려 하였다.

그리고 가는 대나무 빗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인 곡선으로 그어진 선은 운동감과 리듬감을 지녀 계림의 산에서 느낄 수 있는 생동감과 생명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5] 비에 젖은 꽃 - 씻어내림 53 × 92cm, 종이죽, 과슈 2002

【작품 5】 비에 젖은 꽃 - 씻어내림

- 크기 : 53 × 92cm
- 재료 : 종이죽, 과슈
- 제작년도 : 2002

【작품 5】는 어두운 배경은 현실사회의 불안, 고독 등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외되어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를 나타낸 것이다. 꽃의 형태를 단순화 시켰으며 사방으로 뻗어가는 꽃잎을 나타내는 선을 통해 꿈, 희망, 기쁨 등의 이상세계를 펼치고자 하였다.

또 이 작품에서는 색채 대비에 역점을 두어 꽃이 주는 의미를 강조하였는데 태양의 빛인 노란색에서부터 걱정적이고 정열적인 색인 붉은색, 이상과 평화 등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꽃의 화려함으로 강하게 드러내고 선의 움직임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 기쁨과 희망이 자연스럽게 녹아 내리도록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한지를 물에 불려 주무르고 반죽하여 꽃의 이미지에 맞게 먹과 색을 입혀 준비한 뒤 화판 위에 타술을 이용해 배경이 되는 어두운 면과 한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두드린다. 꽃잎을 붉은색과 녹색, 노란색으로 만들어 붙인 다음 손가락을 이용하여 선을 그어 줄기와 나뭇잎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 위에 도구를 사용하여 가는 빗줄기를 표현하였다.



[작품 6] 비에 젖은 꽃 - 씻어내림 81 × 130cm, 종이죽, 과슈 2002

【작품 6】 비에 젖은 꽃 - 씻어내림

- 크기 : 81 × 130cm
- 재료 : 종이죽, 과슈
- 제작년도 : 2002

이 작품은 자유스런 선의 굵기로 꽃에서 느끼는 자연에 나타나는 생명의 이미지와 생동감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녹색은 일반적으로 자연을 상징하는 색으로 쓰이며 이상, 평화, 영원 등을 뜻하기도 하며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녹색의 번짐으로 인해 산의 이미지가 표현되어져 더불어 자연의 풍성함과 대지의 푸르름과 따스함을 나타내었다.

가는 선을 그어 소낙비를 표현하였으며 꽃의 이미지를 크게 그린 것은 비를 맞고 촉촉함이 묻어나는 비 맞은 꽃에 생명감과 울동을 극대화시켜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과 갈등과 좌절 속에 희망과 사랑, 기쁨 등의 감성을 느끼게 해주며 자연에서의 생명의 신비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해준다.



[작품 7] 비에 젖은 꽃 - 씻어내림, 112 × 146cm, 종이죽, 과슈 2002

【작품 7】 비에 젖은 꽃 - 씻어내림

- 크기 : 112 × 146cm
- 재료 : 종이죽, 과슈
- 제작년도 : 2002

산은 이미지에 맞게 종이죽에 먹을 입혀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것이라면 꽃은 주로 선과 단색으로 표현하는데 이 작품에서의 주요색은 노란색이다. 노란색은 금의 색, 태양의 색이라 일컬어져 고귀함과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쓰인 노란색도 풍요와 따뜻함을 나타내며 자연스런 색의 번짐과 한지 고유의 색의 조화로 꽃의 아름다움과 따사로움의 깊이를 더 해준다.

본 연구자는 다른 작가들처럼 한지에 색을 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지에 색을 입혀 붙인다는 개념이 더 크다. 그래서 한지의 물기가 마르면 색이 연해질 수 있으므로 한지에 색을 넣고 반죽할 때 적당히 물기를 빼고 난 뒤 색을 입혀서 화판에 붙여야 한다.

이 작업에서는 좌측 상단의 꽃을 표현하기 위해 커다란 주걱을 눌러서 꽃의 형상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작은 꽃들은 손가락을 이용했다. 가는 선과 약간 굵은 선의 교차로 비의 시원함과 포근함, 그리움 등을 나타내보고 노란색을 사용하여 작품에 포근함이 더 하도록 하였다.

IV. 결 론

창작활동을 하는데 있어 화가는 그가 추구하는 작품세계에 대해 어떠한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창조적 자율성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나 사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자연에서 얻은 미적 체험과 인간의 정신세계를 한지라는 재료를 통해 나타내었고 연구자의 조형의지를 작품의 제작과정을 통하여 정립하고자 했다.

본론에서는 먼저 작품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던 한지에 대한 역사와 특징 등을 논하였고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지가 작품에 도입된 의의와 영향력을 제시해 보았으며 작품에서 쓰인 한지의 다양한 기법과 연구자의 한지작업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품의 소재인 자연의 일반적인 이미지에 대해 언급해 작업에서의 자연 이미지를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써 파악하여 본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감수성과 추상적인 언어의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기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자연 속의 소재를 본인의 심상에 비춰진 이미지와 필연성으로써의 선, 자유로운 선이 갖는 심상의 표현과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표현대상으로써의 한지가 자유롭게 구사될 수 있도록 어떤 인위적인 기법이 아닌 손으로 주물러 우연의 효과를 내는 조형적 표현을 시도해 보았다.

본 연구자가 주로 작업한 한지는 전통적인 재료로써 독특한 느낌을 주어 자연 이미지 표현을 잘 나타내는 소재라 보며 더욱이 한지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재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작업방식이 어떠한 인위적인 기법이 아닌 손맛으로 표현한 것에 가까우므로 자연이라는 소재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방법이었다 하겠다. 그리하여 이미지 범람의 시대라고 일컫는 오늘의 문화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낯익은 이미지와 사물을 빌어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는 가운데 자신의 비옥한 예술적 토양을 가꿔 나가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작품을 분석해 봄으로써 회화 전반의 상황을 폭 넓게 인식하는 가운데 자연의 이미지 속에 자신이 정체성(identity)을 찾아 볼 수 있었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으로 고찰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작품제작에 기틀이 될 수 있는 이론의 확립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작품세계를 이끄는 계기가 되어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관조의 형태로 나타나는 예술이 아닌 함께 느끼고 유희하며 참여할 수 있는 창작활동을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국, 1979
- 이승철, 『한지의역사』, 소호산림문화과학연구보고서제2집, 소호문화재단, 1999
- _____, 『종이만들기』, 학고재, 2001
- _____,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한지』, 현암사, 2002
- 이은상, “자연론”, 『예술원 논문집』, 1996
- 이 일, 『재현표현 그리고 실현』, 공간2호, 1975
- 이 일, 『현대 미술의 시각』, 미진사, 1985
- 제공규, 『한지사 소고』 논단, 서울국립중앙 도서관, 1973
- 조요한, 『예술철학』, 경문사, 1973
- 조용진, 『채색화기법』, 미진사, 1992
-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학위논문

- 김희정. "닥섬유를 이용한 자연 이미지의 표현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수정, "자연의 이미지의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조미영, "전통한지의 우수성과 회화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순정, "자연 이미지의 선에 의한 율동적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Nature Image
through Korean Paper Work

- Centering around My Work -

Byun, Bok Kyu

Dept. of Plastic Arts

Oriental Painting Major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

SungShin Woman's University

Nature offers numerous materials to artists, and gives opportunity for art generously anytime. But, he(or she) chooses material from nature and also reconstitutes it in accordance with the mind of artists to accept, and human beings discover order and law from natur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base of art was nature in any race and in the fine art style of any period easily. It may be common fact that the appearance motive of the form or what becomes the background of spirit in the appearance of new form, while one original art form declines were just another new discovery for actuality or nature regardless of the East and the West. Like this, artists seek beauty endlessly from nature, and nature is offering infinite data. Thus, this researcher tried to express the beauty and generosity that nature gives and nature kept in one's own lost mind by withdrawing from the exigent city life and this rapidly developing world with one step. And, this researcher tried

to make the tough life power and mysteriousness of nature and the wonderfulness and beauty of nature of the materials of subjective image by making the image of nature into form through giving life to the feature of Korean paper and tried to take comfort even for a while in the confused and disorderly society of today by trying to express Korean paper plastically through reconstituting it. Thus, this researcher expressed the vivid image that nature gives to us with the diverse expression techniques of Korean paper, Indian ink, color and line by finding subjects to be mountain, flower, and rain.

In addition, this researcher utilized material freely by soaking Korean paper in water, fingering, and kneading it, so that the feature peculiar to pure Korean paper may be expressed with nature hand skill about original and vivid image.

And, about expression techniques also, this researcher used drawing a line which uses hands or striking which uses brush, and printing etc. about expression techniques also. About color, this researcher expressed the warmth to be felt in nature. And, this researcher expressed the image to be felt in nature by the spreading of Indian ink softly by filtering it with the image of this researcher.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tried Korean paper work peculiarly by using diverse expression methods as what made the image of nature which is settling in inside deeply outwardly by using Korean paper, and this researcher could learn the expression method of art through it, and is expecting that it may be the momentum for the complete inspection for work and for supplementing it, and tries to grope for the diverse techniques and searches and aim at establishing new Korean paper work by contacting more materials in the future.